

코로나19로 인해 증가된 여성에 대한 가정폭력에 대한 경희대학교 ‘보라데이’ 팀 프로젝트 제안서

경희대학교 스페인어학과 최승환
컴퓨터공학과 김민재
기계공학과 김예지
산업경영공학과 윤태웅
전자공학과 이동호
산업디자인학과 변유림

□ 서론

올해 초 발병한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큰 사회적 문제들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코로나19로 인한 여성에 대한 가정폭력의 증가는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저희 팀은 경희대학교의 팀 프로젝트로써 해당 문제에 대한 문제 제기를 진행하는 것도 있지만, 각 팀원이 한 명의 민주시민으로써 당면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고려하고, 당면 문제에 대한 해결을 전제로 본 제안서를 작성합니다. 본 제안서는 코로나19로 인해 증가한 여성에 대한 가정폭력의 전 세계적인 현황 및 실태를 점검하고, 코로나19로 인해 증가한 국내의 가정 내 여성에 대한 가정폭력의 허와 실과 전반적인 문제점 그리고 해외에서 코로나19로 인해 증가한 여성에 대한 가정폭력에 대해 대처하고 있는 사례들을 벤치마킹하여 국내 여건에 맞게 개선하여 제안하고 그 기대효과를 도출하는 것을 통해서 코로나19로 인해 증가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가정 내 여성에 대한 가정폭력을 조금이라도 감소시키고자 해당 제안서를 작성합니다. 본 제안서를 주의 깊게 읽어보신 후에, 부디 조금이라도 긍정적인 답변을 저희 쪽에 제공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증가된 가정폭력의 현황 및 실태

“수많은 여성이 가장 안전해야 할 집에서 위협에 노출되어 있다. 경제·사회적 압박과 공포가 커지면서 가정 내 폭력이 늘어나고 있다.” 지난 4월 5일 중 UN 사무총장인 안토니오 구테흐스의 성명 중 일부분을 인용한 말입니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가정폭력이 전 세계적인 사회 문제로 떠올랐고,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와 이동 제한으로 인해 가정폭력 피해 여성이 가해자와 함께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 가정폭력의 피해가 늘었고, 가정폭력 가해자의 눈을 피해 경찰에 신고하기는 훨씬 더 쉽지 않아졌습니다.

UN Women과 한국여성의전화에 따르면, 코로나19 이동제한령이 내려진 이후 프랑스의 가정폭력 건수는 30% 증가하였고, 아르헨티나 내 가정폭력 응급 신고 전화는 25% 증가하였습니다. 영국과 북아일랜드의 경우에는 가정폭력의 건수가 작년 대비 20% 증가하였고, 미국, 스페인, 덴마크의 경우에도 가정폭력의 발생이 약 2배씩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또한, 캐나다, 독일 등의 선진국으로 분류되는 국가들에서도 가정폭력의 발생과 그에 따른 응급 대피소의 요구가 증가하였습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가정폭력 신고가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경찰청의 통계에 따르면,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나온 지난 1월 20일부터 4월 1일까지의 112 가정폭력 신고 건

수는 45,065건으로, 지난 해 같은 기간의 47,378건과 비교해 약 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가정폭력 신고 건수만으로는 가정폭력의 증감을 예단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나라의 가정폭력 신고율은 2019년에 와서야 겨우 2%를 넘었을 만큼 그 신고율이 낮을 뿐만 아니라 자세히 살펴보면, 강남을 비롯한 몇몇 지역에서는 신고 건수가 증가하였으며, 가정폭력 관련 한국여성의전화 상담 건수는 1월~3월까지 작년 동기간 대비 약 4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한국여성의전화에 따르면, 코로나19로 피해자의 일상생활이 통제당하고 있다는 내용의 상담이 많았으며, 코로나19로 인해 일거리가 끊기거나 재택근무를 하면서 가족이 집에 함께 머무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가정폭력 피해 여성들이 상담 전화 거는 것 자체를 어려워했습니다. 가정폭력 피해 여성들은 밖에 잠깐 외출했을 때나 가해자가 잠시 집을 비웠을 때 가정폭력 상담 전화를 걸었습니다.

□ 코로나19로 인해 증가한 국내 가정폭력의 문제점

① 가정폭력을 경험한 사람 주 겨우 2.3%만이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에서 조사 및 작성한 '2019년 가정폭력실태조사 연구'에 따르면, 배우자에 의한 신체적, 성적, 경제적, 정서적 폭력 피해 경험 당시나 이후에 외부 도움을 청한 적이 있는지 조사한 결과, 배우자에 의한 폭력 피해 경험자의 85.7%(여성 80.3%)는 도움을 청한 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도움을 청한 적이 있는 응답자가 도움을 청한 곳은 '가족이나 친척'이 7.2%, '이웃이나 친구'가 3.6%를 기록한 반면, '경찰'은 겨우 2.3%로 밖에 집계되지 않았습니다. 국내 가정폭력 피해 여성들은 공권력보다는 사적 관계를 통해 도움 요청하는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② 가정폭력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 수준이 높지 않습니다.

경찰청의 통계에 따르면, 2019년 한 해 가정폭력 사건에서의 구속률은 약 1%에 불과하고, 2018년도의 경우에는 약 1%도 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대검찰청의 통계에 따르면, 2017년과 2018년 9월~11월 검찰에서 다뤄진 상해 관련 가정폭력범죄를 분석한 결과, 가정보호사건 송치 처분이 42.4%, 기소처분 30.1%, 불기소처분 22.4%로 나타났고, 2019년 가정폭력 신고 건수 240,723건 중 가정보호처분이 내려진 사건은 고작 13,360건으로 전체 신고 건수의 5.5%에 불과하고, 이 중에서도 접근행위제한(1호)을 처분 받은 사건은 58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가정폭력 처벌에 대한 방점이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아닌 가정 유지에 쫓겨 있는 것 역시 가정폭력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 수준이 높지 않은 큰 이유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낮은 처벌 수준으로 인해 가정폭력 피해 여성들에게 경찰에 피해 사실을 알리는 것은 큰 도움이 되지 못 한다는 부정적인 인식이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③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 자체가 매우 낮습니다.

가정폭력을 사적인 문제로 치부하고, 피해자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 등 가정폭력에서 벗어나지 못 하는 것을 피해자의 개인 의지로 돌리는 인식이 드물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또한, 가정폭력 피해 여성들은 가정폭력 자체를 '집안일'로 여겨 피해자 본인이 당연히 감수해야 하는 일로 생각하는 문화가 아직까지 존재해 있기도 합니다. 다수의 사람들이 신체적 폭력을 중심으로 가정폭력을 이해하고 있으나, 통제, 정서, 성적 폭력 등도 가정폭력의 범주에 해

당하며, 이런 경우가 가정폭력의 유형 중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내용을 뒷받침하듯이, 여성가족부의 '2019년 가정폭력실태조사 연구'에 따르면, 배우자로부터 폭력 피해를 경험한 응답자 중에서 폭력 행동에 대해 '별다른 대응을 한 적이 한 번도 없는' 경우는 45.6%이며, 대응 행동을 한 경우에도 배우자에게 맞대응한 경우가 43.1%로 가장 많았고, 자리를 피하거나 집밖으로 도망간 경우는 12.5%였으며, 주위에 도움을 청한 경우는 겨우 1.0%로 매우 적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④ 가정폭력 피해 여성에 대한 지원 방안이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아 피해자들이 인지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여성의전화에 따르면, 가정폭력 피해 여성들은 자가 격리 상황에서 외부의 지원이 가능한지, 코로나19로 인해 피해자 보호 시설의 운영이 중단되지는 않았는지, 대면 상담이 가능한지 등에 대해 물었습니다. 가정폭력 피해 여성들에 대한 보호 시설은 운영이 계속 된 것으로 확인됐지만, 피해 여성들은 이 사실을 모른 채 보호 시설이 문을 닫았을지도 모른다고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⑤ 유럽의 경우, 국가적 차원에서 가정폭력에 대한 엄중한 대응과 피해 여성에 대한 지원을 보장한다는 메시지를 적극적으로 보내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내용만을 강조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다른 나라의 경우, 증가한 가정폭력에 대해 대응하기 위해 코로나19와 관련된 안전수칙뿐만 아니라 가정폭력 피해 여성과 관련된 전문상담기관의 이메일, 전화번호 등의 연락처와 '당신은 혼자가 아니다' 등의 슬로건을 문자로 함께 전송하여 가정폭력 피해 여성들에게 그들이 지원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지속적으로 알리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이와 관련해 아무런 정보도 제공되지 않고 있는 현실입니다.

⑥ 가정폭력 피해 여성에 대한 지원을 담당하고 있는 관계자들마저 피해자에 대한 지원 대책에 대해 정확히 모르고 있습니다.

* 여성긴급전화 1366과의 첫 번째 전화 인터뷰 내용

Q : 가정폭력을 당했을 때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가?

A : 경찰에 신고하면 경찰이 상황을 확인하고 가족이 분리되어야 할 상황이라고 판단하면 발열과 해외여행이력 체크 후 보호 시설에 입소가 가능하다.

Q : 코로나19로 인해 입소가 중단된 시설은 없는가?

A : 그런 곳은 없고, 경찰을 통해 다 입소가 가능하다.

Q :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가족과 분리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A : 코로나19로 인해 경찰을 통해서만 시설 입소가 가능하다.

Q : 보호 시설 같이 사람이 많은 곳 말고, 혼자 있을 수 있는 공간에 대한 지원은 없는가?

A : 혼자 있을 수 있는 시설은 없다. 보호 시설 입소만이 가능하다.

Q : 혹시 대면 상담은 가능한가?

A : 코로나19로 인해 불가능하다.

* 여성긴급전화 1366과의 두 번째 통화 인터뷰 내용

Q : 여성가족부 정책 중 지역별 주거지원시설 공급 정책이라는 것을 보았다.

A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아는 사람의 연락처를 주겠다.

* 해당 정책을 잘 아는 보호 시설 관계자와 전화 연결이 됨

Q : 여성가족부 정책 중 지역별 주거지원시설 공급 정책이라는 것을 보았다.

A : 그건 보호 시설에서 6개월 이상 거주했을 때만 신청이 가능하다.

Q : 보호 시설에 경찰 신고를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다고 들었는데 맞는가? 1366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대면 상담도 불가능하고, 경찰을 통해서만 입소 가능하다고 답변 주었다.

A : 아니다. 상담소를 통해서도 입소가 가능하다.

* 여성긴급전화 1366과의 세 번째 통화 인터뷰 내용

Q : 코로나19로 인해 상담소가 휴관하여 대면 상담이 불가능하고, 경찰을 통해서만 상담소에 입소가 가능하다고 했는데 맞는가?

A : 아니다. 상담소를 통해서도 입소가 가능하다.

Q : 전국의 가정폭력 상담소가 무기한 휴관했다는 답변을 들었다.

A : 아니다. 상담소마다 다르고, 대면 상담을 진행하는 상담소도 있다. 상담소에서 연결해 보호 시설에 입소가 가능하다.

세 번의 인터뷰만으로도 관계자들마다 상이한 답변을 해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특히, 보호 시설 입소와 관련해서는 경찰을 통해서만 입소가 가능하다는 답변과 상담소를 통해서도 입소가 가능하다는 답변이 나뉘면서 인터뷰 내내 혼란을 겪었습니다. 만약 인터뷰가 아닌 실제 가정폭력 피해 여성이 지원을 위해 문의한 것이라면, 피해자에게 신속한 대처와 정확한 답변이 이루어지기는 힘들었을 것입니다.

⑦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실질적으로 가해자와 분리되어 피신할 수 있는 임시 숙소가 제대로 제공되고 있지 않습니다.

주거지원시설 공급 정책에 의한 임대 주택은 단체 보호 시설 입소 후 6개월 이상이 되어야만 제공 받을 수 있고, 그 수 또한 매우 적어 실질적으로 피해자에게 제공될 수 있는 지원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해외의 경우, 가정폭력 피해 여성에게 금전적으로 일정 금액을 지원하여 긴급하게 숙박업소에서의 투숙까지 지원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미비한 현실입니다.

□ 코로나19로 인해 증가된 가정폭력에 대처하는 해외 사례

① 스페인, ‘마스크19(Mascarilla-19)’ 캠페인

올해 초, 스페인 발렌시아의 알마소라 마을에서 카리나라는 여성이 가정폭력으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카리나는 집 안에서 두 아이가 보는 앞에서 남편에게 살해되었으며, 남편 호세는 마을 방법대원에게 자수하고 범행을 자백했습니다. 카리나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스

페인에 이동 제한 조치가 내려진 뒤 발생한 첫 가정폭력 희생자였습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 19 발병으로 인한 국가 봉쇄가 가정폭력 위기에 놓인 여성들을 더 큰 위기로 몰아넣고 있으며, 가정폭력 피해 여성들은 가해자와 한 집에 지속적으로 머무르면서 가정폭력에 대한 피해 가능성이 높아졌지만, 외부에 도움을 청하기는 더 어려워졌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스페인 카나리아 제도의 카나리섬평등연구소는 코로나19의 발생으로 인해 신고에 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폭력 및 성폭력 피해 여성들을 위한 ‘마스크19(Mascarilla-19)’ 캠페인을 지난 4월부터 시작했습니다. ‘마스크19’ 캠페인이란, 유럽에서 코로나19로 인해 집 밖으로 나와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곳이 많지 않으며, 그나마 약국과 슈퍼마켓 정도만이 출입이 자유롭다는 점에서 착안된 캠페인입니다.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피해자가 약국에서 암호(마스크19)를 말하면 약국 직원이 대신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약국 직원은 ‘마스크19’를 요청한 여성의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를 받아 피해지원기관에 신고하고, 피해자는 귀가하거나 경찰 혹은 지원활동가가 올 때까지 약국에서 기다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스페인 테네리페의 한 여성은 국가비상사태가 선포된 뒤 집에 2주 동안이나 갇혀있었지만, 약국에 가서 가해자가 밖에서 기다리는 동안 ‘마스크19’를 요청하여 가정폭력의 피해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 캠페인은 스페인 전역으로 번졌고, 프랑스와 독일, 이탈리아 등의 다른 유럽 국가 및 남미의 아르헨티나에서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② 프랑스, 호주, 뉴질랜드, 영국 등, 슈퍼마켓 내 ‘가정폭력 팝업 상담소’ 설치

프랑스와 호주, 뉴질랜드, 영국 등에서는 ‘마스크19’ 캠페인과 비슷하게 가정폭력 피해 여성이 슈퍼마켓에 가 암호를 말하면 직원이 대신 신고해주는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특히 프랑스의 경우, 정부가 지난 3월부터 수도 파리와 프랑스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슈퍼마켓 내에 ‘가정폭력 팝업 상담소’를 열고, 가정폭력 피해 여성이 장을 보러 왔다가 자연스럽게 피해 상담과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또한, 구매 영수증 하단에 피해 신고 및 지원기관의 연락처를 인쇄해서 나눠주고, 매장 내에서 무료 와이파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 피해 여성이 지원기관에 원활하게 연락할 수 있도록 돕는 캠페인도 함께 진행 중입니다. 또한, 우즈베키스탄에서는 슈퍼마켓에서 가정폭력 지원 정보에 대한 내용이 담긴 책자를 나눠주는 캠페인을 최근 시행하고 있습니다.

③ SNS 및 온라인 서비스를 활용한 해외 대처 사례

전 세계 각국은 코로나19로 인해 증가된 가정폭력에 대응하기 위해 오프라인 말고도 온라인에서 해결 방안을 모색하여 피해 여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여성·가족부는 가정폭력 피해 여성을 위해 ‘긴급전화(Das Hilfetelefon, 08000 116 016)’과 웹사이트(www.hilfetelefon.de)를 통해 바로 응답이 가능한 채팅, 이메일 상담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가정폭력 피해지원기관들은 가정폭력 피해 여성에게 스마트폰의 사생활 보호 모드 작동법을 교육하고, 가해자가 불시에 방을 들어올 때를 대비해 클릭 한 번으로 피해 신고 사이트 접속 화면을 구글 화면 등 다른 일반 화면으로 바꾸는 기능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 기반의 가정폭력 피해 지원 단체 ‘Women’s Funding Network’는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간단한 손짓 사인을 통해 외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일랜드에서는 한 광고 대행사와 법무부가 협업하여 코로나19로 인해 증가하는 가정폭력의 심각성을 일깨우기 위한 공익 광고를 제작하여 배포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10일, ‘(당신을 위한 도움이) 여전히 여기에 있다(Stillhere)’라는 제목의 공익 광고를 공개했습니다. 이 광고는 가정폭력의 심각성을 잘 표현하고, 여과 없이 전달하기 위해 영상 통화를 이용했으며, 광고는 한 여성이 친구와 영상 통화를 하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통화를 하던 여성은 방문을 열고 들어온 누군가에 의해 화면에서 사라집니다. 이윽고 화면은 까맣게 변하고, 화면 속에선 여성의 울음소리와 누군가의 호통 소리만이 들립니다. 화면은 보이지 않지만 들리는 폭언만으로도 가정폭력의 심각성을 충분히 느낄 수 있도록 제작되었습니다. 광고는 “가정이 안전하지 않다면, 이곳에서 지원 받으세요”라는 자막과 함께 아일랜드 내 가정폭력 익명 신고 시스템인 ‘헬프 라인(help line)’이 안내되며 마무리 됩니다. 이 캠페인은 “집이 안전하지 않다면, (피해 여성을 도와줄 곳은) 여전히 여기 있다는 것을 알아 달라”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폭력적인 가정 상황에 처하게 된 피해자를 위한 도움의 손길이 있다는 것을 효과적으로 알리고 있습니다.

□ 해외 대처 사례를 벤치마킹한 국내 가정폭력 대처법과 가정폭력으로 인한 피해 감소를 위해 이뤄져야 할 점

① 프랑스와 같이, 국내에서도 일상과 자연스럽게 연계하여 가정폭력 피해를 신고할 수 있고,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 개선이 가능한 ‘팝업 상담소’ 등이 많아져야 합니다.

해외에서는 이동제한령이 시행되어 이동의 자유가 매우 적은 것과는 달리, 우리나라는 비교적 자유롭게 이곳저곳을 드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와는 별개로 가정폭력 피해에 대한 신고율이나 인식이 매우 낮고, 가정폭력 피해 여성에 대한 지원 방안도 제대로 홍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사회 곳곳에 그 사실을 숨기고 있는 가정폭력 피해 여성을 돕기 위해 피해 여성들이 술한 어려움을 뚫고 직접 찾아가는 것보다, 이제는 자연스럽게 일상 속에서 그 사실을 인지하고 피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쪽에서 직접 그들을 찾아가야 합니다. 우리나라도 대부분의 가정주부들이 장을 보는 낮 시간 대에 슈퍼마켓이나 대형 마트와 협업하여 가정폭력 피해에 대해 상담해주고, 지원해줄 수 있는 ‘팝업 상담소’, ‘임시 상담소’ 등을 진행해야 하고, 구매 영수증에 피해지원기관에 대한 연락처와 가정폭력 피해 신고를 독려하는 슬로건을 넣어 제공한다면, 가정폭력 피해 여성에 대한 지원을 조금이라도 늘릴 수 있는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② 우리나라도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닌, 가정폭력 피해 여성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전문 피해지원기관의 연락처나 인터넷 주소, 이메일 등과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와 같은 슬로건이 포함된 공공 알림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여야 합니다.

실제로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해 가정폭력이 증가하면서, 이에 대한 피해 예방과 범죄 확산 방지, 피해 여성에 대한 신고 독려를 위해 많은 유럽 국가에서는 정부와 지자체 측에서는 코로나19와 관련된 공지뿐만 아니라, 전문 피해지원기관의 연락처나 인터넷 주소, 이메일 등을 포함하여 시민들에게 메시지를 보내 가정폭력의 심각성을 모두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와 같은 응원 슬로건까지 함께 발송하면서 피해 여성이 용기를 얻어 신고하는데 도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안내와 확진자의 이동 동선에 대한 정보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증가한 가정폭력 피해에 대해 공공 메시지를 보내는 것은 세계보건기구인 WHO에서도 그 예시를 만들어 장려하고 있을 만큼 중요한 사안입니다. 지금도

고통 받고 있을 피해 여성들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 측에서 이러한 부분들까지 고려하여 공공 메시지 및 재난 알림을 보내는 정책을 펼쳐야 합니다.

③ 실제로 가정폭력 피해 여성에 대한 지원을 받고 있는 관계자들에 대한 정확한 교육과 매뉴얼 설립이 필요합니다.

이번에 실시한 세 번의 인터뷰를 통해 저희는 실제로 가정폭력 피해 여성들에 대한 상담과 지원을 담당하고 있는 관계자들의 답변이 상이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실제 상황이었다면, 그 피해 여성은 정확하고 신속한 대처를 받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관계자들이 지원 정책과 매뉴얼 등에 대해 정확히 인지하고 있지 못 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히 큰 문제이며, 1분 1초가 소중한 가정폭력 피해 여성들에게 큰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 단체나 기관 별로 산하 관계자들에 대한 정확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하며, 정확한 교육을 위해서 이와 관련된 현재 매뉴얼들의 비약을 줄여 더 탄탄하게 보완해야 할 것입니다.

④ 가정폭력을 ‘집안일’로 치부하고 있는 문화와 가정폭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가정폭력은 엄연히 심각한 ‘범죄’라는 것을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에게 계속해서 인지시켜야 할 것입니다.

여성가족부의 2019년 연구 자료에 따르면, 배우자의 폭력에 대해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다고 대답한 사람이 응답자의 약 46%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곧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피해를 당하고도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을 정도로 가정 내 폭력 역시 중대한 ‘범죄’라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정폭력을 당하고 있음에도 당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 하고 있는 여성들까지 가정폭력 피해 지원의 대상에 포함하여 이들 모두를 위해 가정 내 그릇된 문화를 개선하려는 움직임을 적극적으로 보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가정폭력이 발생하는 주된 원인을 피해자의 잘못으로 돌리는 가정폭력에 대한 현재까지의 그릇된 인식과 가정폭력도 엄연히 심각한 범죄이기 때문에 가해자에게는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피해자에게는 범죄이기 때문에 그 범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고, 지원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지속적으로 인지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⑤ 가정폭력 피해 여성에 대한 지원 정책 중 애매모호한 부분들에 대한 확실한 재정립을 실시하고, 여러 방면에서 더 적극적으로 피해 지원 제도와 정책을 시행해야 합니다.

실제 전화 인터뷰에서 예를 들었던 여성가족부의 가정폭력 피해 여성을 위한 주거지원시설 공급 정책의 경우, 전체적인 임대 주택의 공급량이 적을 뿐만 아니라 그 제공 기준 또한 애매합니다. 실질적으로 가정 내 여성이 집을 떠나와 6개월 이상 보호 시설에서 계속 거주하기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코로나19로 인해 전염의 위험까지 생각해야 하는 지금 시기에는 더더욱 보호 시설에서의 생활에 대해 회의적인 피해 여성들이 많을 것입니다. 또한, 경제적인 문제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가정폭력이 발생하게 되면 피해 여성 본인 스스로의 경제 능력이 떨어지게 되는 것도 있지만, 따로 일자리가 없거나, 일을 그만 두게 되는 경우에는 가해자에 대한 경제적인 의존도가 더 높아지게 됩니다. 이런 종합적인 상황과 여건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코로나19라는 대전염병이 계속해서 유행하고 있는 시기에, 임대 주택을 제공 받는 조건이 보호 시설에서의 6개월 거주라는 것은 너무도 현실감이 떨어지는 기준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을 보완하고자, 해외처럼 피해 여성에 대해 긴급한 격리 조치가 필요할 경우에는 금전

적 지원을 통해 숙박업소에서 투숙할 수 있게 해준다든지,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피해 여성들이 안심하고 입소할 수 있도록 방역과 소독을 철저히 하고 그에 대한 홍보를 더 활성화한다든지, 지금처럼 특수한 상황의 경우 기준을 충족하지 못 해 제공되고 있지 않는 임대 주택을 가정폭력 피해 여성에 대한 임시 보호소로 전환하여 운영하는 등의 다양한 방안을 고려하여 현 지원 정책에 있는 비약을 줄이고자 지금 상황에 알맞게 정책을 재정립해야 할 것입니다.